

광주시, 데이터 개방...AI 헬스케어 창업 힘 보탠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수집한 자료
K-헬스 사업 의료 데이터 제공
헬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창업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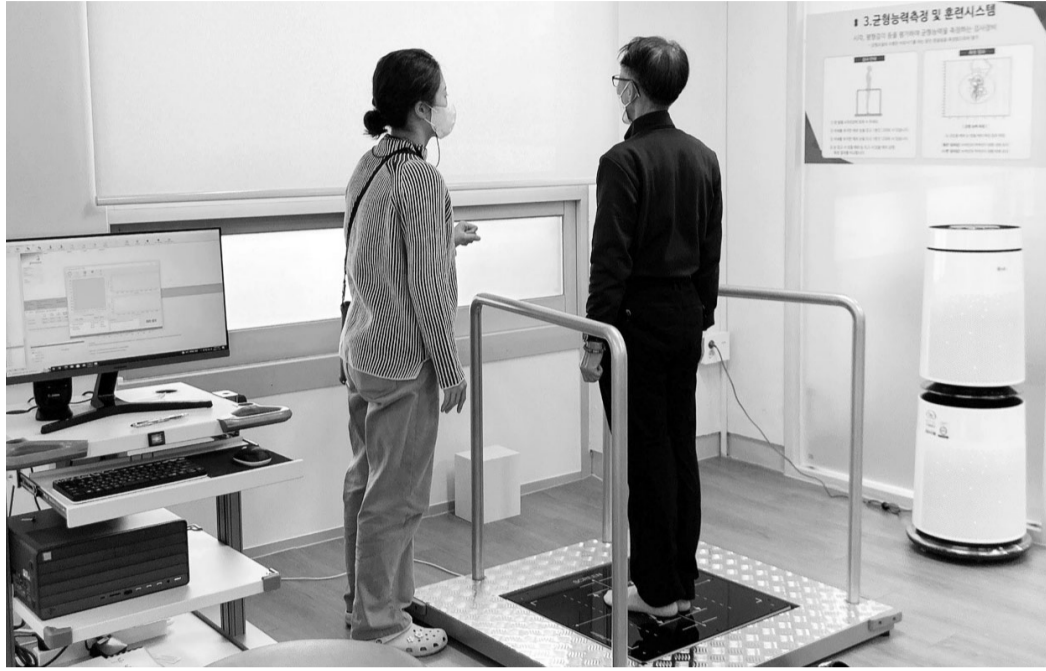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일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헬스케어 실증센터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K-헬스 사업 플랫폼 내 데이터를 한데 모아 올해 말 AI 창업캠프 내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동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반출 없이 AI 기업이 안정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자의 개인 동의를 받고 수집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의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그동안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AI헬스케어실증센터에 구축한 헬스케어 측정 장비를 통해 노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종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2021년 개소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헬스케어 실증센터는 총 16종의 헬스케어 장비가 구축돼 있으며, 노인들에게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체성분, 보행, 체형, 피로도, 근력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특히 AI 헬스케어 실증센터에서 '피부 진단 시스템', '체형 굴곡 측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헬스케어실증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균형능력 등을 측정하고 있다.

정기, '자율신경 측정 시스템', '근적외선 뇌 영상 시스템' 등 장비를 통해 전국 최초로 확보한 다량의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데이터가 개방되면 데이터 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I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고, 광주시민에게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헬스케어실증센터에 구축된 헬스케어 측정 장비 중 '피부 진단 시스템'은 모공, 유분, 주름, 색소 침착, 수분, 탄력, 피부톤, 피부온도 분석 및 유분,

모공, 두피타입, 모발 손상도, 모발 밀도 분석을 통해 피부 상태변화 예측 기능, 고객 연령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체형 굴곡 측정기'는 척추 및 자세 분석을 통해 척추 측만증, 척추 후만증, 척추 전만증을 진단하고, '전신반응 분석 시스템'은 보행에 따른 다양한 사·공간적인 변인 측정 기능을 하며 보행능력 분석과 보행에 따른 다양한 변인을 측정한다.

'근적외선 뇌 영상 시스템'은 뇌 혈류 내 산소 포화도 측정, 뇌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해 피부 상태변화 예측, 고객 연령대 등을 비교 분석하는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율신경 측정 시스템'은 자율신경 측정 및 분석(심박,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비율, 스트레스지향도 등)을 통해 바이오피드백을 훈련하고 심박 변이도 지표를 추출해 '균형능력 측정 및 훈련 시스템'은 균형능력을 측정하고 적합한 훈련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이 같은 '헬스케어 실증센터 데이터'와 함께 'K-헬스 사업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내에 구축 중인 데이터도 동시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협력해 추진하는 'K-헬스 국민의료 인공지능 서비스·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K-헬스 사업은 도시 전역 병의원의 의료 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클라우드 연계를 통해 시민과 의료진에게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애초에 공개 목적으로 수집된 다양한 종류의 AI 헬스케어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해 그동안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창업의 어려움을 겪었던 스타트업의 걱정을 해소하고,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많은 AI 헬스케어 기업들이 광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AI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적·공간정보 구축 드론 운영 자치구까지 확대

광주시는 "고정밀 지적·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을 자치구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2022년 6월 지적 확정 측량조사 및 3차원 공간정보 변화지역 갱신을 위해 정밀 측량용 드론을 도입했으며, 30개소 15km를 촬영했다. 촬영자료는 정사영상 제작 및 3차원 모델링 데이터로 구축해 경계 확인 및 3차원 공간정보 갱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예산 1억여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냈다.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지상표본거리(GSD) 5cm급 고정밀의 영상 취득이 가능하며 필요한 시기에 신속히 촬영해 활용할 수 있어 행정 전반으로 활용이 확산하는 추세다.

광주시는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올해부터 부서 협업을 통해 재난대비를 위한 시설물 점검, 문화재 관리, 각종 정책 결정, 시책 홍보 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3년 무인비행장치(드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70개소를 대상으로 항공사진 촬영, 3D 모델링, 동영상 제작 등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자체 구축한 '항공사진 서비스(aerogis.gwangju.go.kr)'를 통해 도시 변화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연도별 항공사진 재생 또는 특정 연도 항공사진 등을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광주시 수행기관 공모

광주시는 "2023년 광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전하고 든든한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올해 시범 추진한다.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한다. 1년에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이용 정원이 8명(남·여 각 4명)인 '광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곳을 운영하게 되며, 3억 9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발달장애인 8명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법인·단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4월 3일부터 10일까지 시청 장애인복지과로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 공모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가로등제어기 117개소 교체 정비

고장 실시간 대비 사고 예방

광주시는 "올해 제석로 등 가로등 점·소등 제어의 필수기인 가로등제어기 117개소를 대대적으로 교체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공모에서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 확장사업'이 선정돼 국비 2억원 확보했으며, 시비 3억원을 더해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한다.

정비 대상은 내구연한(9년)이 지났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로등제어기 117개소다.

가로등 관제시스템은 2009년에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광주에서 개발했으며, 현재 2900여개의 가로등제어기가 설치돼 가로등의 점·소등과 고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조치하고 있다. 누전사고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안전과 고장에 따른 보수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경자청, 입주기업 인사·노무·금융 지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2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입주기업 성장지원 자문단'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발전과 효과적인 자문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입주기업 성장지원 자문단'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소통형 기업

지원 시책이다. 자문단은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금융, 무역 등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자유역 입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활동 전반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업체 규모나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 자문단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식목일 행사 나무 5681그루 식재



광주시는 최근 송산근린공원에서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 '2023년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고, 목련 등 4종 5681그루를 식재했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